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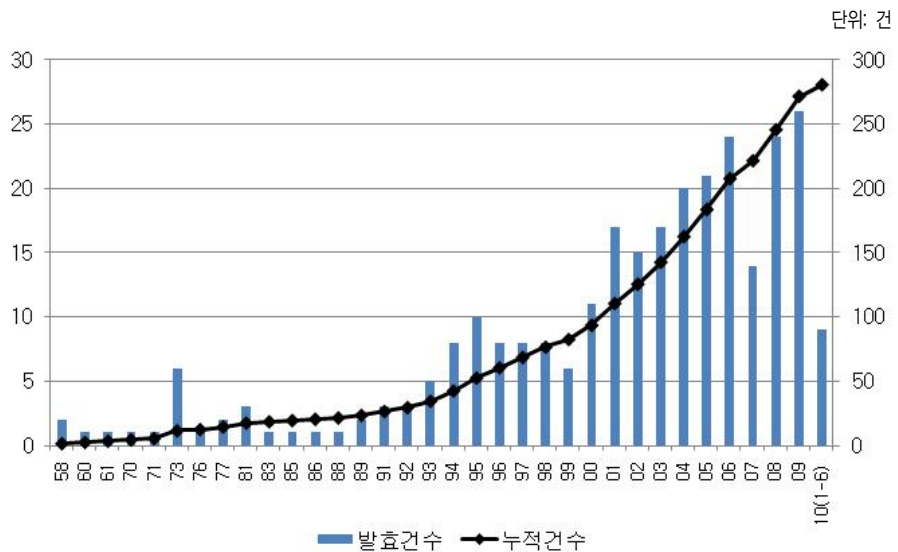
## 그래프로 보는 세계 농업

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부터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해외 시장을 확보하고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FTA를 적극 추진해 왔다. 그 결과, 칠레, 싱가포르, EFTA, ASEAN, 인도 등 16개국과의 FTA가 발효되었고, 2007년 6월에는 미국과의 FTA에 서명하였다. EU와의 FTA 협상은 2009년 7월 종결하였으며, 현재 캐나다, 멕시코, GCC, 호주, 뉴질랜드, 페루, 콜롬비아, 터키 등 13개국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<sup>1)</sup>. 이러한 움직임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계속되는 추세이다.

이번 달에는 전세계의 RTA 및 FTA 현황에 대해 표와 그래프를 통해 살펴보았다. 자료는 FAO 홈페이지, 외교부 FTA 홈페이지를 참조하였다.

자유무역협정(FTA: Free Trade Agreement)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, 지역무역협정(RTA: Regional Trade Agreement)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.

그림 1 전세계 RTA 체결 현황



자료: FAO 홈페이지

현재 발효 중인 276건의 지역협정을 체결시기별로 살펴보면, 47년부터 94년까지 91건에 불과하였으나, 95년 이후 2010년 6월 현재 190건이 체결되어 최근 지역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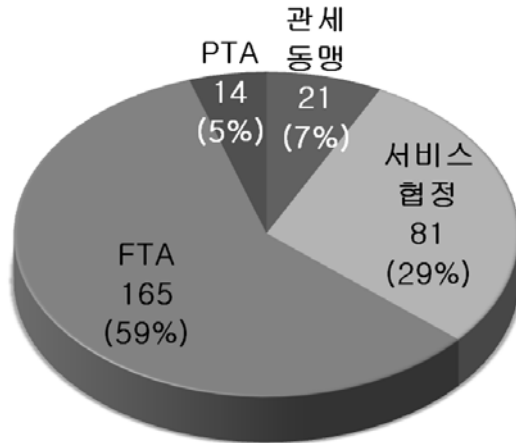
1) 외교통상부 FTA 홈페이지([www.fta.go.kr](http://www.fta.go.kr)).

의의 광범위한 영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.

지역무역협정 체결은 특히 WTO 출범(1995.1) 이후 매년 급속히 확산되어, 2007년 기준 전세계 교역량의 50% 이상이 지역무역협정내 교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추정된다.

그림 2 RTA 종류별 현황

단위: 건, (%)



자료: FAO 홈페이지(www.fao.org).

2010년 6월 현재 FA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(RTA: Regional Trade Agreement) 발효 건수는 총 281건이며, 이 중 자유무역협정(FTA)이 165건(전체 중 59%)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.

참고자료

FAO 홈페이지(www.fao.org).

외교통상부 FTA 홈페이지(www.fta.go.kr).

작성자: 윤종열, 민자혜